

문화일보 사회

기사 게재 일자 : 2011년 09월 16일

☞ 프린트 ☒ 닫기

古木の 전설 들으며 역사 배운다

서울시 '200년 이상된 나무' 자연학습장 활용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서울시가 시내 전역에 흩어져 있는 200년 이상된 고목들에 얽힌 설화와 전설 등을 수집,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어 주목된다. 이를 위해 시는 내년 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내년에 자료집도 발간할 예정이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은 16일 “25개 자치구로부터 자료를 받아 보호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집하거나 새로운 보호수를 찾아내는 작업을 해왔지만 자료가 부족해 탐문조사를 정식으로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며 “고목과 관련된 숨겨진 옛이야기들을 찾아내면 시민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 살아있는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시내에 있는 200년 이상된 보호수는 166그루로 종로 30그루, 서초 27그루, 용산 19그루 등의 순이다. 시는 내년에 수천만원대의 예산을 확보해 보호수에 얽힌 이야기들을 탐문 조사할 예정이다.

마포구는 자체적으로 이미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창전동 공민왕 사당에 있는 고목 4그루(수령 221년인 느티나무 2그루, 186년인 느티나무 2그루)에 얽힌 전설이 바로 그것. 이 고목들에게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사당 앞을 말을 타고 지나가려 하면 말굽이 땅에 붙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말에서 내려 끌고 가야 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왜구를 싫어했던 공민왕의 명을 받은 나무들이 일본인들의 발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마포에는 현재 수령이 130년 이상된 고목들이 15그루가 있으며 이 중에서 10그루가 상수동과 창전동에 분포돼 있다”며 “이들 지역에 정자나무가 많은 이유 등을 역사적으로 설명해주면 주민들이 흥미로워한다”고 말했다.

종로구에 따르면 가회동에 있는 수령 310년의 느티나무는 조선 숙종 때 심은 것으로 일제 치하에 항거한 언론인 고하 송진우, 근축 백관수, 기당 현상운 선생 등이 담론을 나눈 곳으로 알려져 있다. 재동 한법재판소 경내에 있는 600년 된 백송의 경우 수양대군에게 제거당한 김종서의 집 일대 피비린내를 없애기 위해 사람들이 재를 가져다 백송 주위에 뿌렸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처럼 재를 뿌렸다고 해서 이 마을을 ‘잿골’이라 부르다가 재동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의 경우 지난해 염곡동 212-25번지에 위치한 음나무(수령 151년)를 보호수로 지정했고 당산목이었던 이 나무에 얽힌 이야기를 현재 조사 중이다.

이현미기자 always@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All Rights Reserved.